

마을기업형 농어촌만들기 간성읍 해상1리 자율실천결의대회



고성군 간성읍 해상1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대표 이종영)은 지난 2일 마을회관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발대식 및 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마을기업형 농어촌 만들기'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속초소방서 봄철 소방특별조사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3월 신학기를 맞아 4월 30일까지 두달간 관내 청소년 시설 및 교육연구 시설,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봄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점검 등이며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

속초소방서는 또한 3월중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前 방화관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 대처요령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죽왕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지난달 28일 오전11시 오후리 복지회관에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왕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제7대 신임대장인 권상남씨는 1995년 죽왕의용소방대에 입대하고 2011년 죽왕의용소방 부대장을 지냈다. 가족은 부인 변진순씨와 2녀.

탐동리 등에 사방댐 설치

고성군은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9억 5천만원을 투입해 12월까지 간성을 탐동리, 거진을 산북리·송정리, 토성면 성대리 등 4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방댐 설치사업은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산사태 등의 재해예방은 물론 홍수시 토사조절 기능과 함께 가옥, 경지 등 주민의 재산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간성을 탐동리와 거진을 송정리에는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의 복합식(그리드사방댐) 사방댐을 설치하고, 거진을 산북리와 토성면 성대리는 토석 차단기능과 물 저장기능의 중력식(콘크리트 사방댐) 사방댐으로 추진한다.

자생단체 산불예방 노력 다짐

고성군, 자생단체 산불방지 대책협의회 개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1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군청 종합재난상황실에서 자생단체 산불방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간성의용소방대, 간성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고성지회, 고성군재향군인회, 자연보호회 등 20개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1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책임담당 순찰구역 진화공조체제유지, 산불발생 시 진화인력과 장비협조 등 운영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협의, 산불방지 캠페인 및 순찰활동 기록 철저, 순찰시 조끼착용 등 자생단체 협조사항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자생단체 산불방지 대책협의회.

고성군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자생단체와의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공조체제 활성화를 이뤄 산불예방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자치단체 입찰 담합 포착한 음부즈만에 훈장

국민권익위,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 ... 개인 82명, 단체 11곳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여업체간 담합 정황을 포착해 업체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99억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김경수 서울시 시민감사 음부즈만이 지난달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 구제역으로 살처분 한 돼지두수를 약 7천두 이상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20억원의 허위 보상금을 받아낸 육가공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익명)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날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을 열고, 음부즈만과 부패방지, 민원업무 등 3개 부문에 걸쳐 개인 82명과 단체 11곳을 시상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국민신문고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상으로, 조선시대 신문고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2009년 창설한 상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수상자들 덕분에 국민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권익위는 올 한해도 '사회적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 앞서 행사장에 마련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약자의 도우미'로서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주민이 나서자

고성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 개최

고성경찰서(서장 홍순광)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주변 순찰 활동을 하는 '아동안전지킴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동안전지

킴이' 역할의 중요성 강조 및 건의사항·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순광 경찰서장은 개학을 맞아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 취약지역 순찰활동에 적극 힘써 줄 것과 비상상황 시 신속히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 2일 고성경찰서에서 열린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에서 직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